

# 3위까지 2.5경기 차... KIA, 순위 상승 '시동'



롯데를 상대로 스윙을 이루며 6위로 복귀한 KIA가 1일 포항야구장에서 삼성을 상대로 '4연승'을 놓고 격돌한다. 3위 두산울 2.5경기 차로 추격하던 KIA는 박찬호-최원준-김도영으로 이뤄진 '스피드 라인'으로 득점 사냥에 나선다. 김도영이 안타를 치고 타구를 지켜보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 T 타이거즈 전망대

### 포항서 삼성과 '4연승' 대결 주말엔 한화와 안방 3연전 박찬호-최원준-김도영 '스피드 라인' 움직임이 관건

호랑이와 사자가 '4연승'을 놓고 포항에서 격돌한다.

KIA 타이거즈가 포항야구장으로 건너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후 KIA는 안방으로 돌아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펼친다.

3위 두산 베어스부터 7위 롯데 자이언츠까지 3.5경기차에 불과한 만큼 매 경기 자리가 바뀌는 박빙의 순위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창원에서 올렸던 KIA는 주말 안방에서 웃었다.

마틴의 만루포와 페디의 높은 벽에 막혀 NC에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던 KIA는 홈에서 롯데를 상대로 3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후반기 첫 스윙에 성공한 KIA는 1경기 차로 앞선 상황에서 광주를 찾아 롯데를 끌어내리고 6위로 복귀했다.

이의리를 시작으로 윤영철-파노니로 이어진 좌완 선발진이 모두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나란히 승리투수가 됐다. 불펜에서는 최지민의 난조가 아쉬웠지만 임기영과 정해영이 3연투로 스윙을 완성했다.

임기영은 지난 30일 7회 2사 1·2루에서 출격해 2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를 잡으면서 통산 첫 10홀드를 장식했고, 정해영은 최지민이 흔들리던 9회말 등판해 공 하나로 경기를 끝내면서 10세이브를 채웠다.

특히 임기영은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등 '효율적인 피칭'으로 롯데전 3연전에서 확실히 허리 싸움을 해줬다. 29일 경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실책성 플레이로 실점은 했지만 2.1이닝을 21개의 공으로 막으며 스윙스의 빛나는 조

연이 됐다.

상승세를 탄 KIA는 10위 삼성과 8위 한화를 상대로 순위 높이기엔 나쁘지 않다. 방심은 금물이다.

삼성이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고,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KIA가 6승 1패로 앞서있지만 최근 삼성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주중 2위 SSG와의 맞대결에서 워닝시리즈를 가져왔던 삼성은 키움과의 주말 3연전에서도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

지난 주 한화도 키움, SSG를 상대로 '3승 3패' 5할 승률을 찍는 등 후반기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 여기에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KIA가 3승 6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KIA는 재정비를 끝낸 선발진의 힘으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선다.

지난 주 양현종이 승수를 더하지 못했지만 산체스-이의리-윤영철-파노니가 모두 승리투수가 되면서 초반 싸움을 이끌었다.

후반기 첫 등판에 나선 이의리와 윤영철이 각각 '힘'과 '정교함'이라는 장점을 유감 없이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파노니도 세 번째 등판에서 복귀를 만들었다. 시즌 중반 재합류한 만큼 '관리모드'로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파노니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KIA 선발진에 힘이 실렸다.

KIA는 8월 첫 날 산체스를 전면에 내세워 4연승 도전에 나선다.

나성범의 상승세도 반갑다. 나성범은 29일 경기에서 시원한 한방을 선보이는 등 홈런 포함 3안타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소크라테스도 롯데전에서 5개의 안타와 함께 4타점을 만들어내는 등 흐름이 좋다. 올 시즌에도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형우까지 노련한 클린업트리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9번 박찬호를 시작으로 최원준-김도영으로 이어지는 '스피드 라인'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출루만으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침착한 승부로 중심 타선 앞에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

선발진 안정세에 이어 중심타선까지 살아난 KIA가 더 높은 자리에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AI페퍼스, 2경기 연속 패배

###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0-3 박정아 교체멤버 데뷔 무득점

광주 AI페퍼스가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에서 2연패를 당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AI페퍼스가 지난 31일 경상북도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구미·도드람컵 여자부 A조 2차전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0-3(21-25, 16-25, 19-25)로 패했다.

페퍼스는 이날까지 2경기에서 한 개 세트만을 따내는 부진에 빠졌다. 지난 컵대회 포함 이번 대회까지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무승을 이어갔다.

3년 총액 23억2500만원을 주고 페퍼스가 영입한 박정아는 교체멤버로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다. 공격을 시도했으나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이날 페퍼스는 공격성공률 31.43%에 그치는 등 46.36%를 찍은 현대건설의 경기력에 압도됐다.

페퍼스는 블로킹으로 3점을 따내는 데 그쳤고 현대건설 양효진(5점), 이다현(2점)에게 블로킹으로 7점을 내주는 등 높이싸움에서 크게 밀렸다. 빈약한 공격력도 결정적 패인이었다.

페퍼스에서는 이한비가 9득점으로 최다 점수를

기록했고 박경현(8점), 박은서(8점) 등 출장 선수를 통틀어 두자릿수 득점한 선수가 없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18득점), 김주향(13), 황연주(12) 등 3인방이 무려 43점을 합작했다. 페퍼스가 상대 범실을 제외하고 공격으로 뽑아낸 40득점을 웃도는 스코어다.

2세트에서는 페퍼스의 고질적 문제점이 노출됐다.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제대로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16점을 뽑아내는 데 그쳤다.

3세트에서는 12-13으로 결정적 추격기회를 잡았으나 잇단 범실로 무너졌다.

박경현과 김해빈이 서브 리시브 과정에서 충돌했고 세트 이고은과 하혜진의 중앙공격이 호흡이 맞지 않아 불을 놓쳤다.

페퍼스는 이날도 후위공격을 꾸준히 시도하는 등 공격 옵션 가능성을 타진했다.

박은서와 이한비가 14차례 시도해 5점을 뽑아냈다. 현대건설이 13차례 시도한 횟수 보다 많았다.

페퍼스는 한국도로공사전에서 박은서가 11차례,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한비가 6차례, 채선아 4차례 후위공격을 시도, 10점을 일궈냈다.

페퍼스는 2일 KGC인삼공사와 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AI페퍼스 박정아가 지난 31일 경상북도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구미·도드람컵 여자부(A조 2차전) 현대건설과 경기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 제공)

## 세계 1위 안세영, 셔틀콕 단식 '절대 1강' 노린다

### 천위페이 등과 4강 구도 세계선수권·AG가 관건

현재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은 4강 구도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을 중심으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천위페이(중국), 타이즈잉(대만)이 '빅4'를 형성한다.

엃치락뒤차락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안세영은 31일 야마구치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올라 한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올해 참가한 11개 국제대회에서 우승 7차례, 준우승 3차례, 동메달 1차례를 달성하는 등 기량을 활짝 꽃피운 덕분이다. 안세영은 올해 들어 뛰어난 체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수비력을 극대화하고 공격에서는 헤어핀과 드롭샷의 정확도를 한 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세영은 2023년 새해가 밝자마자 한 달간 인도 오픈-인도네시아마스터스 우승,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으로 궤조의 출발을 알렸다.

3월에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을 제패하며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4월 아시아개인선수권과 5월 수리르만컵에선 연속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삼킨 안세영은 6월 태국오픈과 싱가포르오픈을 연속 석권해 다시 기세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하반기 첫 대회인 지난 23일 코리아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전날 일본오픈 우승으로 세계 1위마저 차지했다.



안세영(삼성생명)이 지난 30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마구치, 천위페이, 타이즈잉을 상대로 성장형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속적' 야마구치와의 통산 전적은 아직 8승 12패로 밀리지만 올해만큼은 3승 2패로 앞선다.

또 작년까지 1승(8패)밖에 거두지 못해 짝짝 못하던 천위페이에게는 올해 4승(2패)을 뺏았다.

원래도 우위였던 타이즈잉에게 올해 5승(1패)

를 거둬 통산 전적을 8승 2패로 늘렸다.

이들을 상대로 맞춤형 공략법을 연구해온 것이 마침내 효과를 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안세영의 금빛 스매싱은 8월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한다. 이 두 대회에서 지금과 같은 기세를 유지한다면 기존의 4강 구도를 완전히 깨트리고 '절대 1강'을 구축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부티에, LPGA 예비앙 챔피언십 우승

### 1994년 대회 창설 이후 사상 처음 프랑스 국기 휘날려

'이민자의 딸' 셀린 부티에(프랑스)가 프랑스 땅에서 열리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아문디 예비앙 챔피언십(총상금 650만 달러)에서 사상 처음 프랑스 국기를 휘날렸다.

부티에는 31일(한국시간) 프랑스 예비앙레방

의 예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브룩 헨더슨(캐나다)을 6타차로 따돌린 부티에가 챔피언 퍼트를 마지막 18번 홀 그린을 에워싼

프랑스 관중들은 프랑스 국기를 흔들면서 감격의 합성을 외쳤다.

1994년 창설된 아문디 예비앙 챔피언십은 프랑스 땅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이자 메이저대회지만 부티에 이전에는 프랑스 선수가 우승한 적이 없다. 부티에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이민자들이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아람이 공동 3위(7언더파)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연합뉴스